

선험적 구상력과 時間

朴 璣

I. 序 論 : 문제의 地平

II. 本 論

1. 순수직관과 선험적 구상력
 - 時間의 자기촉발 (Selbstaffektion) 문제
2. 구상력의 순수종합 (reine Synthesis) 과 時間性
 - 2-1 선험적 연역 一般의 원리와 문제의식
 - 2-2 구상력의 순수종합의 3 양상과 時間地平
 - 1) 覺知 (Apprehension) 의 종합 - 現在
 - 2) 再生 (Reproduktion) 의 종합 - 과거
 - 3) 再認 (Rekognition) 의 종합 - 미래
 - 2-3 구상력과 統覺 및 時間과의 관계
 - 자기 인식의 문제
3. 구상력의 圖式作用 (Schematismus) 에 의한 선험적 시간 규정
4. 원칙론에서의 時間과 악

III. 結 論

참고문헌

I. 序論 ; 문제의 地平

구상력(Einbildungskraft)과 시간의 문제는 「순수이성비판」이라는 <이성의 自己認識의 과업>¹⁾을 수행함에 있어, 그 근처에 가로 놓여 있는 근원적이고도 포괄적인 문제지평을 형성하고 있다.

구상력과 時間이 모든 a priori 한 인식의 가능근거가 됨은 Kant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는 모든 a priori 한 인식의 근처에 놓여 있는 인간 영혼의 근본능력 (ein Grundvermögen der menschlichen Seele) 으로서 순수구상력을 갖는다. 우리는 이 구상력을 매개로 한편에서는 직관의 다양과, 다른 한편으로는 순수통각의 필연적 통일의 制約을 결합으로 가져온다” (A124) 따라서 “구상력의 순수종합 (reine Synthesis) 의 필연적 통일의 원리는 統覺에 앞서, 모든 인식 특히 경험의 가능근거가 된다” (A118)

1)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AXI

즉, “Ich denke”라는 사유형식으로 표시될 수 있는 통각의 통일도 구상력의 근원적 종합작용을 매개로 해서만 순수直觀(시간)의 다양과 관계 맺을 수 있게 되며, 이로써 한 갖된 자기의식의 形式的 통일에 그치지 않고 나의 存在에 對한 a priori한 내용적 규정을 포함하는 선험적 自己認識²⁾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a priori한 자기 인식의 수행인 비판의 근원적 가능성이 노정되는 것이다.

또한 순수인식의 원천·범위 및 限界를 규정하여 경험인식 一般과 形而上學의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비판」의 전과제를 Kant가 <a priori한 종합의 가능성에 對한 물음 (Wie sind synthetische Urteile a priori möglich?)>(B19)으로서 제기했다고 할 때, 이는 경험적 후천적 종합과 구별되는 순수종합의 문제일 수 밖에 없고 이 물음은 결국 <순수직관(Zeit)과 순수사유(Apperzeption), 감성의 수용성과 오성의 자발성 간의 근원적 통일근거로서의 구상력의 순수종합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물음으로 귀착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미 감성론에 있어 ‘시간의 자기축발(Selbstaffektion)의 문제’로서 나타나며, 또한 연역론의 근본과제³⁾로서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식론은 물론 원칙론의 제 증명들에 있어서도 구상력과 시간은 논의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구상력과 시간의 문제는 선험철학의 포괄적인 문제영역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인식의 수행인 「비판」 자체를 가능케 하는 근본계기로서 근저에 놓여 있음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과 같은 물음들이 제기되어야만 한다. Kant를 제외한 어떤 체계적 철학적 문제설정으로부터도 하나의 야매한 심성능력인 구상력이 이렇듯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제기된 적은 없었다고 할 때, Kant는 대체 어떤 계기로부터 구상력을 철학안으로

2) Ibid, B158 ff 참조, 즉, 자기의식인 統覺을 통해서만 단지 形式的으로 나를 사유함에 그칠 뿐 아무런 내용적 규정도 부여할 수 없는 限, 「자기의식은 아직도 자기인식은 아니다 ... 자기인식을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을 思惟하는 이외에, 나의 이 사유를 규정하는 바, 내 속의 다양의 직관을 필요로 한다」(B158) 여기서 Kant는 능동적으로 ‘자기의식을 규정하는 내 속의(內感의) 다양의 직관’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감관에서의 개관作用(Synopsis)’(A97)과도 연결되며, 달리 말해 ‘직관에서의 覺知(Apprehension)’(A98)라고도 할 수 있다. 개념의 자발성과 구별되어, 한갓 인상의 수용성으로 간주된 감성이 이렇듯 능동적, 자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구상력의 순수종합에 근거함으로써 가능한 것임이 드러난다. 또 이 문제는 시간의 자기축발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本著Ⅱ 1.2 참조)

3) 선험적 연역의 과제는 形式上 Kategorie의 객관적 타당성을 증명하는 권리문제(guid juris)로서 제기되고 있지만, 그 실질적인 內容은 서로 이질적인 두 인식능력(감성과 오성)의 a priori한 결합가능성의 문제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구상력의 reine synthesis의 근원적 가능성에 대한 해명인 것이다. 初版에서, 구상력의 reine synthesis의 문제는 覺知·再生·再認이라는 <3重의 종합이론>을 통해 드러나며, 이는 初版의 연역의 핵심을 이룬다. 또, 종합일반의 기능을 오성에 귀속시켜 구상력의 위치를 격하시켰던 再版에서 조차 구상력은 형상적 종합(figürliche Synthesis)의 능력으로 그 선험적 기능이 재차 요구되고 있다.

끌어들이고자 했으며, 이런 심리적 소여를 선험철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즉 '대상의 현존없어도 직관할 수 있는 능력' (B151) 으로 간주되는 구상력의 선험적 의미란 무엇인가? 만일 구상력이 「비판」에서 두 인식줄기인 감성과 오성의 매개를 위해 '공통된 알려지지 않은 뿌리' (B29) 로서 끌어들여졌다면, 대체 무엇이 그 정당성을 보장하는가? 또 애초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두 인식능력간의 엄밀한 구분과는 달리 연역론에서는 영혼의 3원칙⁴⁾ 을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연역론의 결과가 <통각이 직관의 대상이 성립할 때 이미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애초에 상정된 2分法的 전제를 스스로 폐기하는 것인 동시에, 감성론에서 배척했던 일종의 지적 직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어둠(Dunkelheit) 과 혼란으로 뒤덮인 연역론에서 구상력의 올바른 위치를 어떻게 定位할 수 있는가? 나아가 구상력의 순수종합과 시간 및 순수통각의 內的 연관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되어야 하는가? 또 再版에서 추가된 시간의 자기촉발의 이념과 구상력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Kant 자신에 의해 명확히 해명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날카롭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도 않다. 구상력은 우리 인식능력들의 근원적 연관을 위해 '종합 一般의 능력' (B103) 으로 끌어들여졌을 뿐, 더이상 구체적으로 순수수용의 形式인 시간과 일종의 능동적 종합작용인 구상력이 어떤 方式으로 관계맺을 수 있는지, 또 순수사유인 통각과 일종의 직관작용인 구상력이 어떻게 서로 동질적일 수 있는지, 이 때 무엇이 무엇을 근거지워주는 것인지, 따라서 우리 인식구조 전체의 통일이 어떻게 가능하며,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미리 상정된 인식능력의 본질적 구분은 「비판」의 체계내에서 과연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하나의 연관된 문제지평을 형성하고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런 문제들의 탐구는 선험철학 자체의 가능근거를 그 뿌리로 부터 되물어가는 탐구여야만 하는 바, 이제 우리는 「비판」의 첫단계인 「선험적 감성론」을 첫번째 탐구영역으로 가져가려 한다.

II. 本 論

1. 순수직관과 선험적 構想力

— 時間의 자기촉발(Selbstaffektion) 문제

Kant 는 감성론에서 시간이 공간과 더불어 감성적 직관의 순수形式(reine Form der sinnlichen Anschauung)임을 증명⁵⁾ 하고, 이를 또한 순수直觀(reine Anschauung)이라고 규정⁶⁾ 한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시간파악은 시간에 두가지 상이한 의미⁷⁾를 부

4) 감관 Sinn, 구상력 Einbildungskraft, 통각 Apperzeption 을 말한다. (A94 참조)

5) B46

6) B36, B65

7) B65에서 Kant 는 시·공이 주관의 形式的조건일 뿐 아니라, 동시에 직관대상 자체를 가능케하는 作用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cf. Heidegger 도 「시·공은 단지 직관하는 方式(Weisen anzuschauen) →

여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즉 직관形式으로서의 시간이란 단지 경험의 가능제약으로서 전제되는 주관의 形式이라는 한갓 形式的 규정을 의미할 뿐이지만, 순수직관으로서의 시간파악은 시간이 사유作用과 구별되어 직관作用으로 파악됨을 전제하며, 따라서 단순한 形式的 규정이 아니라 시간에 對한 a priori 한 內容규정을 내포하는 것이다.⁸⁾ 이때 다음과 같은 물음이 제기된다. 순수직관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경험적 質料로부터 독립된 감성의 한갓된 形式을 어떻게 내용적으로 파악하고 규정할 수 있는가?

시간은 사물처럼 독립적으로 實在하지 않으며, 또한 사물의 속성도 아니다. 시간은 어떤 경험으로부터 추상된 경험적 개념도 아닌데, 왜냐하면 오히려 경험一般의 가능조건으로서 시간이 전제되어야, 사물의 同時存在나 繼起도 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간은 모든 직관의 근거에 있는 a priori 한 필연적 조건으로서 표상된다. 이렇듯 시간이 현상들을 가능케 하는 보편적 制約인 限, 시간으로부터 現象들을 제거할 수는 있어도 現象들로부터 時間을 떼어낼 수는 없는 것이며, 이로써 직관形式인 시간의 선천성(Apriorität)이 증명된다.⁹⁾

그러나 Kant에 의해 이제 a priori 하게 主觀속에 內在化된 時間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 內容에 대한 해명이 시도되고 있지 않은 채, 단지 경험일반의 필연적 보편타당성을 위해, 主觀一般의 a priori 한 조건이라는 形式的 규정이 부여되고 있을 뿐이다. 즉 위의 증명은 우리의 경험일반이 필연적으로 인간의 고유한 직관方式인 시간을 전제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 더이상 그러한 시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또 어떻게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지, 도대체 모든 現象을 제거하더라도 남을 수 있는 時間자체의 내용이란 무엇이며, 그것의 파악이 과연 가능한가 라는 문제가 도외시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의 先天性은 결국 선천적 종합명제의 가능성을 위해 전제되고 있을 뿐이다. 예컨대, 「시간은 一次元만을 갖는다」거나 「상이한 시간들은 동시적일 수 없고 단지 繼起의일 수단 있다」(B47)는 시간의 公理도 그 필연성을 시간자체의 선천적 필연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¹⁰⁾ 그렇다면 a priori 한 감성形式인 시간자체의 內容과 性格은 어떠한 것인가?

→ auen)일 뿐 아니라 직관된 것(das Angeschautes)을 포함하는 순수직관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Phänomenologische Interpretation von kants K.d.r.V.S.121), 또 Düsing은 이를 시간의 2중적 의미(Zeit als Anschauungsgegenstand und Form der Anschauung)로 간주한다. Objektive und Subjektive Zeit Kant-Studien Bd. 71 Nr. 1, 1980

8) 도식론에서 Kant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감의 다양의 形式的 조건인 시간은 순수直觀에 있어서의 a priori 한 다양을 내포하고 있다」(B178) 또, 연역론에서는 「시·공이 단지 감성적 직관形式으로서 선천적으로 표상될 뿐 아니라, 그 자신(다양을 내포하는) 직관들로서 자기속에 다양의 통일이라는 규정을 수반하여 표상된다」(B104)고 말한다.

9) B46-47 시간관념의 형이상학적 해명 1).2) 참조

10) 이렇듯 시간의 Apriorität로부터 선천적 종합명제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방식이 곧 선천적 해명이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一次的 계기로서 파악된다」는 '시간의 公理' Axiom der Zeit는, 원치론에서의 '직관의 公理'(B202 ff 참조)와 물의 범주의 도식인 '시간계열 Zeitreihe' 과 연결시켜 생각해야 한다. 즉, 이때 파악된 시간의 계열은 시간 자체를 단위로 구분하여 계기적으로

시간은 直觀性을 지녀야 한다. 왜냐하면, 상이한 시간들은 단지 동일한 시간(derselbe Zeit)의 부분들로서 표상되는 바, 이렇듯 단일한 대상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표상은 직관이기 때문이다. 즉 限定된 時間量은 그 기초에 있는 유일한 시간(einige Zeit)의 制限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근원적 시간표상(ursprüngliche Vorstellung Zeit)은 無限한 것으로 주어져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시간의 全體表象(die ganze Vorstellung)은 개념에 의해서는 주어지지 않으며, 직접적직관(unmittelbare Anschauung)이 그 근저에 놓여 있어야 한다.

以上에서 Kant는 시간이 순수直觀임을 증명하고 있다. 시간이 일반개념일 수 없다는 논거로서, 시간은 부분표상이 전체에 선행하는 개념과 달리, 그 부분들은 무한히 주어지는 유일한 전체시간을 이미 전제하며 그 制限을 통해서만 성립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의 근원표상은 어떤 方式으로든 시간자체를 파악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가능한 것이라고 할 때, 대체 우리는 어떤 方式으로 시간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가? 모든 경험적 질료로부터 독립된 감성의 한갓된 形式이 어떻게 '무한히 주어지는 것'으로서 더우기 '유일한 全體'로서 내용적으로 표상될 수 있는 것인가? '대상을 知覺하는 우리의 고유한 方式'일 뿐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모든 現實的 知覺에 앞서(vor aller wirklichen Wahrnehmung)'¹¹⁾ 파악하고 그것을 순수직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이같은 근원표상은 개념에 의해 주어질 수 없으므로 오성적 사유로서 파악될 수 없으며, 또 경험으로부터 독립된 선천성을 지니므로 경험적직관으로도 파악될 수 없는 限 결국 순수직관인 시간자신에 의해 직접적으로 직관(unmittelbare anschauen)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순수직관인 시간은 어떻게 직접적 自己直觀을 수행할 수 있는가?

內感의 形式인 시간은 內的현상의 직접적 조건인 동시에 간접적으로 外的현상의 조건이

부가함으로써 얻어진 外延量에 불과하다. 즉, 이는 우리의 外的 직관(공간)속에서 그어진 직선으로부터 유추된 표상이며, Bergson이 극렬히 반대하는 공간화된 시간, 곧 분량시간(temps quantité)이요, 등 질적단위의 제열인 數와 일치한다. 따라서 Kant도, 이를 「부분이 전체를 가능케 하는 계기적 종합(sukzessive synthesis)에 의한 外延量」(B209)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며, 「시간의 모든 관계는 외적직관에 의해 표시될 있다」(B50)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Kant의 의도가 단지 이러한 자연과학적 객관적시간을 기술·설명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그 근원적 가능근거를 선형적으로 해명하려는 데 있다고 한다면, Kant의 시간론이 일면적으로 분량시간, 공간화된 시간을 유일한 시간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않된다. 그것은 위에서 보여지는 '근원적 시간표상'과 '시간의 자기촉발의 이념'을 통해 시간의 근원적 주관성과 공간에 대한 우위가 뚜렷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 11) B59-60 그런데, 여기서 시간자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Kant의 주장은 원칙론에서 경험의 3유추를 증명함에 있어 전제되는 바, 「시간자체는 지각되지 않는다」(B226, 233, 257)는 명제와는 모순되는 듯하다. 그러나 Ewing이 지적하듯이, 원칙론의 증명에서 Kant가 의도한 바는 단지 시간이 물리적 대상과 동일한 方式으로 지각될 수 없다는 것일 뿐이며, 따라서 위의 명제는 「우리가 대상의 인지이외에, 시간에 대한 어떤 종류의 인지(some sort of awareness)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양립할 수 있다」 A short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p63.

되며, 따라서 모든 현상일반의 a priori한 形式的 조건¹²⁾이라고 한다면, 시간은 공간에 대해 우위를 지니는 보편적인 순수직관¹³⁾으로서 수용성一般의 조건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시간의 자기직관의 문제는 곧 <감성적 수용성一般의 조건인 시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직접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으로 환원될 수 있고, 이 물음은 수용적 감성으로서의 선험적 主觀자체의 存在方式 그 본질구조에 대한 물음을 함축하고 있다.

Kant 자신도 이 문제가 감성론 자체의 가능근거로서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再版의 '감성론에 대한 일반적 주석'의 끝 부분에 <시간의 자기축발이론>을 부가함으로써 이 문제의 해명을 시도하고 있다. 「시간은 경험에서의 표상의 의식에도 선행하고, 우리가 표상을 마음 속에 定立하는 方式的 形式的 조건으로서 근거에 놓여 있는 것이며, 이미 繼起·同時 및 이 양자를 결합한 것(持續)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표상으로서 그 무엇을 思考하는 作用에 선행할 수 있는 것은 直觀이다. 그리고 직관이 관제 이외에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直觀의 形式이다. 직관의 形式은 심성 속에 무엇이 定立되는 경우 외에는 아무것도 표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形式은 심성이 자신의 활동에 의하여, 즉 자신의 표상을 定立하는 作用(Sätzen ihrer Vorstellung)에 의하여, 따라서 자기 자신에 의하여 촉발되는 方式(Art wie durch sich selbst affiziert wird), 즉 形式上 內感(ein innerer Sinn)인 것이다」¹⁴⁾

이로써 시간의 자기직관의 문제, 곧 감성적 主觀의 자기수용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발견된다. 그것은 內感에서의 자기축발에 의해 가능하다. 즉 시간은 內感의 形式으로서 '자신과 자신의 내적상태를 직관하는 형식적 조건'이라고 할 때, 결국 시간은 스스로에 의해 촉발되어 자기직관을 수행하는 순수內感作用이기도 한 것이다. 「적어도 인간에게 있어, 직관이란 대상이 주어짐을 전제로 하며... 대상에 의해 촉발되어 표상을 얻는 수용성이 곧 감성」(B33)이라고 할 때, 시간의 자기직관·감성의 자기수용의 문제 역시 수용적 감성에 자기 자신이 주어짐을 전제로 하며, 이는 결국 외적대상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성 자신이 스스로를 촉발함으로써, 스스로 수용할 것을 근원적으로 形成하면서 주는 方式으로(in der weise einer ursprünglich bildende Genbung)¹⁵⁾만 가능한 것이다. 바로 그런 限에서만 직관形式은 동시에 자기 속에 직관된 것(das Angeschautes)을 포함하는 순수직관作用일 수도 있는 것이며, 근원적 시간표상도 이로써 가능하게 된다.

이때 다음과 같은 물음이 제기된다. 위에서 감성론 자체의 가능근거로서 시간의 자기직관이 가능함을 해명하기 위해 도입된 '자기축발의 이론'은 그러나 수용성의 형식이어야 할 시간에 스스로를 촉발하는 自發性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는 자발적 오성과 구별되는 수용적 감성을 전제로 했던 감성론의 대전제 자체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 또 이

12) B 58

13) Heidegger, Kant und das Problem der Metaphysik 1973, s. 51

14) B 67

15) Heidegger, Kant und das Problem der Metaphysik, S. 137.

때 시간이 '표상一般을 定立하는 形式的 조건' 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때, 이는 통일적 규정일반의 원천인 통각과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Kant의 선험적 자기축발의 이념은 자발성 자체 속에 수용성의 가능성이 놓여 있다는 생각과 밀접히 연관된다」¹⁶⁾ 따라서 자기축발의 이념은 분명 시간과 통각의 內的 관련성을 암시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시간이 통각에 의해 촉발된다거나 능동적 오성이 수용적 감성을 일방적으로 규정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아라는 단순한 표상(통각)에 의해서만 주관의 모든 다양이 자기활동적으로 주어져 있다면 內的直觀은 知性的인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B68)

그렇다면 자기축발의 자발성은 어떤 性格을 갖는 것인가? 그것은 부분으로 부터 전체의 통일을 형성하는 개념적 사유와는 달리 통일적 전체가 부분에 선행되는 바, 순간적인 봄(Einblick) 속에 들어오는 통일¹⁷⁾, 즉 직관적 통일을 부여하는 自發性인 것이며, 근원적 合一的으로 통일을 부여하면서 통일을 봄(ursprünglich einigend, d.h. Einheit gebend, die Einheit erblicken)¹⁸⁾을 의미한다. 이는 곧, 비주제적으로 순수한 시간의 像을 미리 통일적으로 形成하면서 수용하는 직관능력 곧 순수개관(Synopsis)이요, 대상의 현존없어도 直觀할 수 있는 능력인 구상력의 순수종합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內感은 구상력의 선험적 종합에 의해 촉발된다」(B154)는 Kant의 말은 이러한 의미로서만 이해된다. 즉, 구상력의 「종합을 통해 시·공의 관념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며 「이 선험적 직관의 통일은...순수오성개념에 속하지 않는다」(B161 Am) 시간은, 말하자면, 「想像的 存在(ens imaginarium)」(B347)인 것이다.

이로써 순수직관인 시간이 근본적으로 구상력의 순수종합에 근거함으로써만 순수자기축발을 수행할 수 있음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시간의 근원표상은 스스로 像을 형성하면서 주는 순수구상력의 생산적종합(produktive Synthesis)¹⁹⁾ 속에서 미리 보여진 통일로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미리 보여진 통일이 모든 시간관계一般을 규정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地平²⁰⁾을 형성하는 것이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 감성론에서 애초에 모든 경험적 질료로부터 독립된 한갓된 직관形

16) H. Mörchen, Einbildungskraft bei Kant, S. 53. 우리가 Kant의 자기축발의 이념을 하나의 이념(Idee)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자기축발이 그 가능근거를 궁극적으로 인식불가능한 자아자체의 자발성에 두는 것인 한에서, Kant 스스로 언급하듯이 증명된 「논거로서 보아져서는 안되고」(B72), 단지 감성론의 해명을 위해 제시된 하나의 이념으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7) A 99에서 Kant는 「표상은 한 순간에(in einen Augenblick)포함된 것으로서는 절대적 통일(absolutes Einheit)일 수 있다」고 말한다. 또, 再版의 연역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이 통일을 나는 감성론에서는 감성으로서만 간주했다. 그것은 이 통일이 비록 종합을 전제할지라도 모든 개념에 실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B 161 Anm).

18) Heidegger, ibid, S. 139

19) A 118

20) 즉 그 속에서 사물의 동시존재나 체계가 규정될 수 있는 內的 直觀의 지속적 形式(B224)을 말한다.

식으로 파악된 시간은, 나아가 자기 속에 직관된 것을 포함하는 순수직관으로, 다시 주관과 주관의 内的상태를 직관하는 内感의 形式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축발에 의한 순수내감작용자체로 파악되며, 이는 또한 주관의 자기직관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인 바, 이로써 시간의 主觀性이 점차 심화되어 나타남을 발견하게 된다. 또 이와 더불어 시간과 구상력 및 통각의 關係성이 주제적인 문제로서 부각되고 있다. 즉, 자발성 자체 속에서 수용성의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Kant의 자기축발의 이념 속에서, 우리는 시간의 구조와 구상력의 종합간의 일치를 발견하게 되며,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양자의 關係 해명이 요구된다. 또한, 이때 잠정적으로 능동성으로 간주된 구상력과 통각의 關係가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축발이란 이미 축발하는 것과 축발되는 것, 주는 자와 수용하는 자, 규정자와 규정되는 자의 동일성을 전제하는 것이라면, 규정성 一般의 형식인 통각과 수용성 一般의 형식인 시간은 양자의 근저에 놓인 하나의 統一에 귀속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시간의 자기축발의 이념은, 말하자면 「주관이 時間의 像 속에서 자기자신과 마주치게 됨 (das Subjekt begegnet gleichsam sich selbst im Bilde der Zeit)」²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순수자기축발인 시간은 「자기의 自己에 대한 關係」²²⁾를 근원적으로 形成하는 것인 限, 자발적수용성인 有限한 自己의 본질구조를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들을 Kant 스스로 감성론에서는 더이상 문제삼고 있지 않다. 단지 자기축발의 이념을 제시함으로써 인식능력들의 통일적 연관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선험적분석론」에서 Kant 자신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이런 문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제기되고 또 해명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構想力의 순수종합(reine Synthesis)과 時間性

2-1 선험적 연역 一般의 원리와 문제의식

Kategorie의 선험적연역은 「순수이성비판」의 전체체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난해한 부분으로 Kant 스스로도 최대의 노고를 치렀다고 슬회하고²³⁾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호성(Dunkelheit)으로 말미암아 再版에서는 전면적인 改述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再版의 연역이 Kant의 의도대로 그렇게 명료한 서술이 되었는지는 의문이다.²⁴⁾

대체 이같은 연역의 모호성은 어디에 기인하는가? 그것은 연역의 수행이 상이한 두 측면을 함축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가? 初版의 머리말에서 행한 다음과 같은 언급은 선험적연역을 수행함에 있어 Kant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장 잘 드러내 주고 있다.

21) Mörchen, Einbildungskraft bei Kant, S. 53

22) Heidegger, Kant und das Problem der Metaphysik, S. 185

23) AXVI

24) BXXXVI에서, Kant는 초판의 연역의 모호성을 제거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오성과 통각의 논리적기능으로 일관된 듯한 再版의 연역에서도, 특히 §24-26절에서 <자기인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또 다시 구상력의 선험적기능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때, 再版의 연역 역시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오성이라고 부르는 능력의 근본을 탐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오성개념의 연역이라는 표제下에 실험적분석론 2장에서 행한 研究밖에 없다. ... 상당히 깊이 파고들어가 이 考察은 두 측면을 지닌다. 하나는 순수오성의 대상에 관하여 a priori 한 개념들의 객관적 타당성을 증시하는 것이며, 이 고찰은 나의 목적에 본질적으로 귀속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순수오성 자체를 그 가능성과 오성자신이 의거하고 있는 인식능력들에 쫓아서, 따라서 순수오성을 그 主觀的 관계 속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이 고찰은 나의 목적에 관해 대단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나의 주목적에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AXV)

즉, 연역의 두 측면이란 첫째, Kategorie의 객관적 타당성을 증명함으로써 경험인식의 가능성을 정초하고 오성사용의 限界를 설정하려는 <연역의 객관적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보다 근원적으로, 오성능력 자체를 그 뿌리로부터 파고들어가 오성자신이 근거하는 주관적 원천들로부터 사유능력 자체의 가능성을 해명하고자 하는 <연역의 주관적측면>이 그것이다.

Kant는 연역론의 제1절에서 ‘실험적연역一般의 원리’를 서술하면서, Kategorie의 실험적연역을, 개념의 경험적 발생과 유래 등 事實문제(quid facti)를 다뤘던 Locke式的 경험적연역과 구별하여, 개념의 a priori한 대상관련성을 증명하는 권리문제(quid juris)로서 설정²⁵⁾하고 있다. 이는 이미 위에서 살펴본 연역의 객관적측면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객관적측면의 연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가 요청되는가? 만일 Kant가 자신의 최초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인식능력들의 엄밀한 二元性이란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불가능한 ἀνομία로 남게 된다. 즉, 감성적직관과 오성적사유가 엄밀히 구분되며 서로 무관한 이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때, Kategorie는 결코 직관의 대상과 관계맺을 수 없게 되며, 따라서 그 객관적타당성도 확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Kategorie의 경험적실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리가 요청된다. 「Kategorie는 경험을 가능케 하는 a priori한 制約으로서(사유의 제약일 뿐 아니라, 직관의 제약으로서) 인정되어야만 한다」(B126).

이때, 다음과 같은 물음이 제기된다. 대체 이러한 원리의 요청이 함축하는 바는 무엇인가? Kategorie가 이미 감성적직관의 制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Kant의 요구는 선행적으로 감성과 오성, 직관과 사유가 a priori하게 관계맺음을 전제로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서로 기능을 교환할 수 없는 인식능력들의 근원적 연관은 어떻게 가능한가?

Kant는 이러한 당혹스러운 물음에 대한 해명을 앞서 언급한 주관적연역의 근본과제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탐구는 「인간인식一般의 근원적 가능성의 최초근거에 육박할 것을 요구」²⁶⁾하는 바 「불명료한 前人미답의 길이며, 그럼에도 불가결한 研究」²⁷⁾라고 특징지운다. 그러나 이러한 研究는 경험심리학적 고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25) Kant는 이러한 실험적 연역의 과제를 「선천적인 개념인 범주가 어떻게 a priori하게 대상과 관계할 수 있는지 그 方式의 설명」(B117)이라고 정의한다.

26) A 98

27) A 97

라, 「경험가능성에 대한 a priori 한 기초가 되는 주관적 원천들을 그 선험적 性質에 따라 고찰」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유능력인 오성자체 및 a priori 하게 대상과 관련하는 개념의 가능성을 오성자신이 근거하는 主觀의 원천들로부터 해명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탐구는 객관적연역 자체가 가능할 수 있는 주관적 근거의 해명인 것이며, 그런 限에서 주관적연역은 오성사용의 限界를 명시하려는 Kant의 의도를 직접 만족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그의 목적에 “대단히 重要的” 연구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순수오성자체가 그에 근거하며, 경험一般의 가능근거가 되는 주관적원천들이란 무엇인가? Kant는 최초의 엄밀한 2분법과는 달리 여기서 주관의 3원천을 주장하고 있다.

즉, 「모든 경험을 가능케 하는 조건들을 포함하여 그 자신은 심성의 限 능력에서 끌어내어질 수 없는 근원적인 3원천(영혼의 소질 또는 능력)이 있다. 즉 감각(Sinn), 구상력(Einbildungskraft), 통각(Apperzeption)이 그것이다. 이 세 능력에 근거하여 1) 감각에 의해 a priori 한 다양을 개관(Synopsis)하고, 2) 구상력에 의해 이 다양을 종합(Synthesis)하며, 끝으로, 3) 근원적 통각에 의해 이 종합의 통일(Einheit)이 성립한다. 이 세 능력은 모두 경험적으로도, 선험적으로도 사용된다 … 감각에 대한 선험적사용에 대해서는 제 1부(감성론)에서 진술하였고 이제야 우리는 구상력과 통각의 本性을 통찰하려 한다」(A98).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구상력이 감각에서 개관된 a priori 한 다양을 종합하는 능력으로 감각의 다양을 통각의 통일으로 매개시키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관의 원천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Kategorie가 감각대상에 적용될 수 있는 권리근거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사유능력자체의 주관적 가능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 Kategorie의 발생론적 해명이 요구되며, 더 나아가 분리시켜 고찰된 감각과 오성의 근원적 결합이 주관적원천 속에서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물음에 대한 해명이 선험적으로 요구되는 바, 이러한 연역의 근본과제를 Kant는 구상력의 순수종합의 문제로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구상력의 순수종합이 인식능력들의 合一化를 근원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이라면, 이런 合一속에서 主觀의 원천들은 모두 종합의 性格을 띠게 되는 것은 아닌가? 따라서, 「감관이 직관속에 다양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에 일종의 개관作用(Synopsis)을 부여한다면, 이에겐 언제나 종합의 능력이 대응하며, 수용성은 自發性和 결합해서만 인식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종합은 모든 인식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3重의 종합의 기초이다. 즉 직관에 있어 심성의 변양인 표상의 覺知(Apprehension)와 구상력에 있어 표상의 再生(Reproduktion)과 개념에 있어 표상의 再認(Rekognition)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이런 종합이 오성자체를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오성의 경험적 산물인 모든 경험을 가능케 하는 主觀의 3인식원천(감관·구상력·통각)에로 인도한다」(A97).

이때, 주의할 것은 이런 3重의 종합이 독립된 세가지 종합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종합의 3양상이며, 이들은 자기 경험적으로도 순수하게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종합에 기초가 되는 것은 근원적 자기축발로서 내감의 형식인 시간이다. 「우리의 표상은 모두 심성의 변양으로서 내감의 형식인 時間에 필연적으로 종속한다. 시간 속에서

모든 표상들은 질서지워지고 결합되며, 서로 관계맺어야 한다. 이것은 이하의 연구에 있어 철저하게 근거에 두어야 하는 일반적 주의다」(A99). 따라서 시간은 선험적연역의 필수요건이 된다면, 이러한 종합의 3양상 속에서 구상력과 시간의 관계는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는가?

2-2. 구상력의 *reine Synthesis* 의 3양상과 時間地平

1) 覺知의 종합(*Synthesis der Apprehension in der Anschauung*) - 現在

“모든 직관은 자기 속에 다양을 내포한다. 그러나 이 다양으로부터 직관의 통일(가령, 시간표상처럼)이 되게 하자면, 우선 다양을 개관(*durchlaufen*)하고, 다음에 개관된 것을 결합(*Zusammennehmung*) 함이 필요하다. 이런 作用이 覺知의 종합이다.”²⁸⁾ 수용성인 감성은 다양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이때 作用하는 구상력의 「종합이 없이는 다양은 다양으로서 더구나, 하나의 표상 속에 포함된 것으로」²⁹⁾ 근원적 통일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다. 覺知의 종합이 결국, 구상력의 作用임은 다음에서 명백해진다. 「구상력이라 부르는 다양을 종합하는 활동적인 능력이 우리 内部에 있다. 이 구상력이 직접적으로 지각에 미치는 作用을 나는 覺知라고 부른다」³⁰⁾ 즉, 경험적 覺知란 구상력이 인상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像을 형성하는 作用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覺知의 종합은 또한 *a priori* 하게 가능해야 하고, 시간의 순수다양과 관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覺知의 종합없이는 시간의 선험적표상도 갖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표상은 감성의 근원적 수용성에서 제시되는 다양의 종합을 통해서만 산출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覺知의 순수종합(*reine Synthesis der Apprehension*)을 갖는다」³¹⁾

이제야 감성론에서 제시된 시간의 근원표상과 자기촉발의 가능성이 해명되고 있는 것이다. 즉 시간을 근원적으로 형성하는 作用이 구상력의 순수종합인 것이며, 또 감관에 *Synopsis* 作用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도 수용적 감성이 근원적으로 구상력의 순수종합에 근거함으로써 覺知를 수행할 수 있는, 이른바 자발적 수용성이기 때문이다. 모든 현실적 知覺(경험적 覺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에 구상력의 순수 覺知가 전제된다. 순수자지란 무한히 주어지는 *a priori*한 시간의 다양을 개관·결합하여 하나의 통일적인 形像(*reine Bild*)³²⁾을 산출하는 作用으로, 이것이 현재주어지는 모든 인상들의 선·후관계를 규정할 수 있게끔 하는 現在一般의 地平을 형성하는 것인 동시에, 모든 경험적직관의 근거에 놓여 있는 순수직관으로서 근원적시간표상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2) 再生의 종합(*Synthesis der Reproduktion in der Enbildung*) - 과거

앞서, 覺知의 종합이란, 마음 속에서 주어지는 직관의 다양을 개관·결합함으로써 직관

28) A 99

29) A 99

30) A 120

31) A 100

32) Kant는 도식론에서, 「감관일반의 모든 대상의 순수形像(*reine Bild*)은 시간이다」(B182)고 말한다.

에 근원적인 통일을 부여하는 作用을 말한다. 그러나 예컨대 경험적각지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계기적으로 주어지는 인상들을 잊지않고 지나간 인상들을 계속 再生해내는 作用이 전제된다. 「만일 구상력의 再生능력이 없다면, 다량의 覺知만으로는 아무런 形像도 산출하지 못하며, 인상들의 연관도 산출하지 못할 것이다」³³⁾ 따라서 覺知의 종합은 이미 자체 內에 再生의 종합을 內包하며, 이런 再生이 ‘대상의 現在없이도 직관할 수 있는’ 구상력의 作用임은 자명한 것이다. 이러한 再生의 종합 역시 a priori 하게 가능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라는 가장 순수하고 근원적인 표상도 생겨날 수 없을 것이다」³⁴⁾ 따라서 覺知의 종합과 再生의 종합은 불가분으로 결합되어 모든 인식-般을 가능케 하는 선험적 근거를 형성한다. 전자가 現在지명을 形成한다면, 후자는 「以前의 地평을 파악하고 이를 미리 현시하여 과거-般의 가능성을 形成하는 것이다」³⁵⁾

3) 再認의 종합(Synthesis der Rekognition im Begriffe) - 미래

再生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再認의 종합이 전제된다. 즉, 전에 지각한 것과 지금 再生된 표상이 동일하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순간 전에 생각한 것과 동일하다는 의식이 없다면, 표상들의 계열에서 모든 再生은 불가능」³⁶⁾하기 때문이다. 이때 再認은 하나의 의식 (ein Bewußtsein)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순차적으로 직관된 다양과, 다음에 再生된 다양을 하나의 표상으로 결합하는 종합·통일의 의식을 말하며, 이러한 의식이 없이는 개념도, 대상인식도 전혀 불가능하다. 이 하나의 의식, 즉 의식의 同一性이 바로 선험적 통각(transzendente Apperzeption)이다.

「이 순수하고 근원적이며 불변적인 의식을 나는 선험적통각이라고 부르려 한다. 이렇게 명명함이 합당한 이유는 가장 순수한 객관적통일인 선험적개념(시간)의 통일로 오직 이 의식의 통일과 관계해서만 가능케 된다는 데서 명백하다」³⁷⁾ 즉, 「순수통각은 모든 가능한 직관의 다양에 종합적 통일의 원리를 주는 것이다」³⁸⁾ 따라서 再認의 종합 역시 순수직관인 시간과 관계 맺은 것이며, 그것은 아직 결합되지 않은 시간의 다양에 앞으로의 통일이 가능성을 미리 부여하는 作用인 限, 근원적으로 미래地평을 형성하는 作用임이 드러난다.

이로써 구상력의 순수종합의 3 양상인 覺知·再生·再認이 각각 시간의 3 양상인 현재·과거·미래를 근원적으로 形成하는 作用임이 드러나며, 이제야 감성론에서 불명료하게 남아있었던 구상력과 시간의 內的연관성이 해명된다.³⁹⁾ 그러나 아직도 구상력과 통각 및

33) A 121

34) A 102

35) Heidegger, Kant und das Problem der Metaphysik, S. 176

36) A 103

37) A 107

38) A 116

39) Kant 는 「형이상학강의」에서는 구상력을 形成능력(die bildende Kraft)으로서 다루며, 현재, 과거, 미래의 시간표상을 形成하는 도상(Abbildung)·再像(Nachbildung)·豫像(Vorbildung)의 능력으로 각각 대응하여 설명하고 있다. Mörchen Einbildungskraft bei Kant S. 24

통각과 시간의 관계는 모호한 것으로 남아있다. 대체 구상력의 순수종합을 매개로 우리 인식능력들의 근원적 결합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구체적인 해명이 요구된다.

2-3. 구상력과 통각 및 시간의 관계 - 自己認識의 문제

구상력이 ‘종합一般의 능력’으로서 최초로 도입되고 있는 곳은 개념의 분석론 1장 3절 「순수오성개념 즉 범주에 관하여」라는 표제하에 있다. 표제가 이미 시사하듯이 구상력은 Kategorie를 발견하는 실마리로서 종합의 문제와 연관되어 끌어들여지고 있다. Kategorie가 형식논리학에서 다루는 바, 내용없는 공허한 분석적개념이 아니라, a priori하게 대상과 관계하는 바, 선험적내용을 지닌 순수오성개념이어야 한다면, 그것은 분석이 아닌 종합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종합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선험적논리학은 선험적 감성론이 순수오성개념에 질료를 주고자 제시하는 감성의 a priori한 다양을 자기 앞에 가지고 있다. 이런 질료가 없이는 순수오성개념은 아무 내용도 없는 전혀 공허한 것이다」⁴⁰⁾ 그러나 이런 다양으로 부터 인식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이 다양이 우선 어떤 方式으로든 개관되고 수용되어 결합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作用을 나는 종합이라고 부른다…… 만일 이때 다양이 경험적이 아니라, (시·공의 다양처럼) a priori하게 주어져 있다면, 이 종합은 순수(rein)하다」⁴¹⁾ 「이러한 순수종합이 일반적으로 표상될 때 순수오성개념을 제공한다」⁴²⁾ 그런데 이런 「종합一般은 단지 구상력의 作用으로, 이는 맹목적이지만 불가결한 영혼의 기능(die unentbehrliche Funktion der Seele)이다. 이 기능없이는 어떤 인식도 갖지 못할 것이지만, 이를 우리는 드물게 의식하고 있다」⁴³⁾ 이로써 Kategorie가 선험적내용을 지닐 수 있는 것은 구상력의 순수종합을 매개로 순수직관의 a priori한 다양과 관계맺을 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구상력의 순수종합이 순수오성개념을 내용적으로 가능케하는 作用임이 드러난다.

그러나, 구상력의 순수종합이 Kategorie에 내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순수종합에 통일을 부여하지 못한다면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종합적 통일」이라는 표상 속에만 개념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종합적 통일」이란 일반논리학에서 다루는 바, 개개의 표상을 분석하여 주어진 개념아래 (unter Begriff) 포섭하는 논리적기능도, 개념들에서 판단의 形式을 산출하는 분석적통일도 아니다. 오히려 직관의 a priori한 다양의 순수종합을 개념화 (auf Begriff bringen) 하는 통일이요, 선험적내용을 지닌 Kategorie를 비로서 성립시키는 作用이다. 따라서 「개념은 직관一般의 대상에 a priori하게 관계하되, 일반논리학에서는 이런 일을 성취할 수 없다」⁴⁴⁾ 이로써 Kant는 Kategorie의 발생론적 해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며, 연역론에 앞서 범주의 객관적타당성을 증시하고 있다. 연역론의 두 측면을 포괄하는 사상이 여기에 이미 요약적으로 제시되

40) B 102
41) B 103
42) B 104
43) B 103
44) B 105

고 있는 것이다. 즉, Kant는 인식의 최초근원을 더듬어 모든 사유규정에 선행하는 구상력의 종합작용에 주목하고, 그로부터 오성 및 Kategorie 자체를 가능케 하는 주관적 원천들(순수직관·구상력·統覺)의 근원적 연관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일단 종합一般의 능력으로 간주된 구상력은 애초의 심성능력의 2分法에 따르면, 자발성의 원천인 오성에 귀속하는 능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Kant는 자신의 手本에서는 ‘영혼의 기능’이라는 표현을 ‘오성의 기능’으로 고치고,⁴⁵⁾ 再版의 연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종합一般을 자발성인 오성의 기능으로 환원시켜, 전적으로 구상력의 매개없이 수행하고자 하는 뜻이 보인다.

그러나 경험의 가능성이 의존하는 apriori한 주관의 3원천은 곧 오성자신이 근거하는 인식능력들일 뿐만아니라, 이런 원천들의 근원적 연관 속에서만 범주도 비로소 성립하는 것임이 드러난다고 할 때, 감성과 구별되어 자발성으로서만 간주된 오성도 그 근원적 가능성에 있어서는 이미 감성적 직관을 전제하는 것이며, 규칙의 능력인 오성이 대상개념을 직관에 부여할 수 있는 것도, 선행적으로 「수용성의 조건(시간)이 항상 대상개념을 촉발해야」(B102) 가능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물음은 감성론에서 제시된 시간의 자기촉발의 문제와의 연관 속에서만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때 대상개념이란 “선험적대상인 X”(A109) 요, “직관의 대상을 종합·통일할 무렵의 의식의 통일”을 의미한다고 할 때, 순수직관이 자기촉발을 수행함에 있어 동시에 자기의식을 촉발해야하며, 이렇게 촉발됨으로써만 비로소 통각은 직관의 다양에 통일(대상개념)을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apriori한 자기인식의 구조가 드러난다. 즉, 자기인식을 위해서는 自己意識이외에, 자기의식의 「규정작용에 앞서 내안에서 규정하는 자(das Bestimmende)—자발성의 의식—를 주는 자기직관」⁴⁶⁾을 필요로 한다. 즉 「심성속에 있는 것이 자기의식을 촉발해야 하며, 이런 方式으로만 자기직관을 수행할 수 있다. …… 이때 자기의식의 능력은 자기자신을 직관하되, 직접 자기활동적으로 표상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이 내부에서 촉발되는 方式에 따라 직관하는 것이다」⁴⁷⁾

결국, apriori한 자기인식은 이미 자기직관을 전제하며, 그것은 시간의 자기촉발을 통해 가능하다고 할 때, 「지성자(통각)는 내감이라 부르는 제한적 조건(시간)에 종속」⁴⁸⁾함으로서만 내감을 규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로써 통각과 시간의 구조적 관계 및 이에 근거하는 오성의 본래적 성격이 드러난다. 순수직관은 스스로 규정자(통각)를 촉발함으로써 규정받는 것이며, 통각은 이렇게 촉발됨으로서만 자기를 촉발한 직관의 다양을 규정한다. 따라서 자기인식의 근원적 연관 속에서 감성은 한갓 수용성이 아닌, 자발적 수용성이듯이, 오성도 한갓 자발성이 아닌 수용적 자발성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능력들의

45) A 78. In Kants Handexemplar(Nachträge XLI) “einer Funktion des Verstandes”

46) B 158

47) B 69. 따라서, 자아자체를 직관할 수 없고, 단지 현상으로서의 자아만을 직관할 수 있다
(cf. B 153)

48) B 159

근원적 습—은 그 뿌리로부터 구상력의 순수종합에 근거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즉, 시간의 자기축발의 自發性이 본래 구상력에 근거함은 물론, 축발된 통각이 내감에 통일을 부여하는 때에도 이미 구상력의 종합이 전제된다. 왜냐하면 통각의 「종합통일은 이미 종합을 전제하거나 내포하는 것」⁴⁹⁾이며 「종합一般은 단지 구상력의 作用」⁵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상력의 순수종합은 근원적으로 시간의 像을 산출하는 作用인 限, 생산적 종합(produktive Synthesis)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상력의 순수(생산적) 종합의 필연적 통일의 원리는 통각에 앞서 모든 인식, 특히 경험의 가능근거가 된다」⁵¹⁾

이러한 구상력의 선험적기능은 구상력의 위치를 격하시켰던 再版에서 조차, 한갓 범주 속에서 생각되는 종합인 오성의 지성적종합(Synthesis intellectualis)과 구별되어 形像的종합(Synthesis speciosa)의 기능으로 재차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형상적 종합이 통각의 근원적 종합적통일에만, 즉 범주에서 생각되는 선험적통일에만 상관할 때, 그것은 순 지성적 종합과 구별되어 구상력의 선험적종합(transzendentale Synthesis)이라고 한다」⁵²⁾

앞서 살펴본, 구상력과 통각 및 범주의 관계가 다음과같이 요약될 수 있다. 「구상력의 종합에 관계하는 통각의 통일은 오성이다. 그리고 구상력의 선험적종합에 관계하는 통각의 통일은 순수오성이다. 따라서 오성 속에는 모든 가능한 현상들에 관한 구상력의 순수종합의 필연적통일을 포함하는 순수인식들이 들어있고, 이것들이 Kategorie 즉 순수오성개념이다」⁵³⁾

구상력은 대상의 現在없어도 직관할 수 있는 능력으로, 범주에 대응하는 직관을 줄 수 있는 주관적 조건인 점에서는 감성에 속하고, 또 통각의 통일에 일치하여 감관을 선천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限에서는 오성과 동종적이다. 구상력은 이렇듯 직관적 수용성과 규정적 자발성을 共有하는 形成능력(Bildungskraft)⁵⁴⁾으로 자유롭게 像을 형성하면서

49) A 118

50) B 103

51) A 118

52) B 151.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Kant가 범주 및 통각의 통일을 상이한 두가지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성적 종합이 「한갓 범주 속에서 생각된 오성의 종합」이라는 말 속에서, 범주는 판단표에서 도출된 한갓 분석적 개념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상력의 形像的 종합을 설명함에 있어 「범주에서 생각되는 선험적 통일」과의 관련을 얘기할 때, 범주는 순수직관의 다양을 선험적 내용으로 갖는 순수오성개념을 말한다. 이러한 구분은 통각의 통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통각의 분석적 통일은 종합적 통일을 전제해서만 가능하다」(B 133)고 할 때, 분석적 통일이란 오성의 지성적 종합과 관계하며, 판단形式에 있어서의 통일을 말한다. 반면 종합적 통일은 구상력의 종합을 전제하는 통일이다.

53) A 119

54) 「인간학」에서 구상력은 형성능력의 하나로서 다루지며, 이는 직관적 체시의 능력(Vermögen der anschaulichen Darstellung)을 갖는 것으로서 설명된다. cf. Mörchen, Einbildungskraft bei Kant, S. 17

수용하는 능력인 限 자기중의 수용인 순수직관을 바로소 가능케 하는 것이며, 또 통각에도 선행하여 인식능력들의 근원적 습—을 가능케 해주는 “영혼의 근본능력”임이 드러난다.

그러나 아직도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우리 앞에 놓여있다. 즉, 앞서 드러났듯이, 자기직관이 지적직관이 아닐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시간의 자기촉발에 의해 “内部에서 촉발되는 方式으로만” 직관할 수 있는 限에서 가능했다. 그러나 자발성의 능력을 오직 오성에 귀속시켰던 再版에 있어, 수용성의 形式이어야 할 시간에 자발성을 부여하는 <자기촉발의 이론>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⁵⁵⁾ 또한 자기직관의 문제와 관련된 다음의 언급 속에서 또다른 혼란에 직면하게 된다: 즉 「자기의식의 능력이 심성 속에 있는 것을 탐구(覺知 apprehendieren) 해야 할 때는, 심성속에 있는 것이 자기의식의 능력을 촉발해야 한다」⁵⁶⁾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애초에 감관에 귀속하는 Synopsis 作用으로, 나아가 시간형성적인 구상력의 作用으로 간주된 覺知가 여기서는 통각의 作用으로 명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자기촉발의 현상속에서 순수직관(시간)과 순수사유(통각)가 동일한 主觀의 作用(覺知)으로 서로 일치하게 됨을 의미하지 않는가? 궁극적으로 內感에서의 자기촉발이 의미하는 것은 촉발하는 것과 촉발되는 것의 동일성이라고 한다면, 양자는 그 근저에 놓인 동일한 자아의 활동능력에 귀속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모든 apriori 한 인식의 근저에 놓인 영혼의 근본능력”인 限 「내감은 구상력의 선험적 종합에 의해 촉발된다는 우리의 말은 정당하다」(B 154)고 할 수 있지 않은가?

3. 구상력의 圖式作用(Schematismus)에 의한 선험적 시간규정

이질적인 두 인식능력인 감성과 오성, 순수직관(시간)과 순수개념(Kategorie)이 근원적으로 구상력의 순수종합을 매개로 결합되어야 한다면, 이제 그 구체적인 作用方式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Kant 는 이 문제를, 「개념의 감성화(개념의 대상을 직관속에 부여하는 일)와 직관의 오성화(직관을 개념 아래 포섭하는 일)」⁵⁷⁾의 문제로서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경험적개념인 ‘개’의 개념은, 어떤 구체적인 개의 형상이 지니는 특수성과 차이에도 제한되지 않는 보편성을 지닌다. 그렇다면, 이같은 이질적인 양자를 매개시켜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개의 개념에 따라 어떤 네발 짐승의 형상을 일반적으로 그려 낼 수 있는 우리의 상상력을 전제하는 것이 아닌가? 또, 예컨대 ‘삼각형이라는 수학적

55) 그러나 이런 문제의식으로부터, 오성의 自發性을 극대화하여 「오성이 내감을 촉발하여 다량의 결합을 산출한다」(B 152)는 생각의 수정은 오히려 문제를 더 혼란 속으로 빠뜨린다. 왜냐하면 이런 주장은 결국, 한갓된 사유에 의해 「주관속의 모든 다량이 자기활동적으로 주어짐」을 의미하는 것인 限, 일종의 지적직관을 요구하는 것이며, 나아가 감성의 독립성조차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56) B 68

57) B 76

개념을 특정한 삼각형의 형태로 제시하기 위해서도 이미 삼각형一般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의 표상이 전제된다. 이렇듯 한 개념에 形像을 부여하는 구상력의 일반적 作用方式의 표상이 곧 도식이다.⁵⁸⁾

「도식 (Schema) 은 선험적 순수구상력의 소산이며, 도식은 말하자면, 그것에 의해 비로소 形像 (Bild)이 가능케 되는 하나의 약도 (Monogramm) 인 것이다. 따라서 형상은 …… 단지 도식을 매개로 해서만 개념과 결합할 수 있다.」 「현상과 단지 그 형식에 관한 우리 오성의 도식作用은 인간 영혼의 깊이에 숨겨진 기술 (ein verborgene Kunst in den Tiefen der menschlichen Seele) 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도식론에서 구상력이 단지 자발성인 오성에 종속하여 이미 주어진 개념에 따라 감성을 규정하는 능력으로 간주되며, 연역론에서 드러났던 바, 선험적으로 개념 자체를 내용적으로 가능케 하고 통각에 앞서 모든 인식을 가능케 하는 구상력의 순수종합에 대한 해명이 도외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Kant는 “도식一般이 구상력의 소산”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성의 도식作用”을 서술하고 있고, 범주표에 따라 선험적도식을 해명함으로써 구상력의 본래적인 기능은 “영혼의 숨겨진 기술”로서 은폐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Kant가 도식론의 문제를 ‘포섭’의 문제로 설정하고 규정적판단력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Kant는 「판단력비판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규정적판단력 (die bestimmende Urteils kraft)이란 단지 주어진 법칙 또는 개념 아래 포섭하는 능력”으로 “이미 주어진 개념(범주)을 감성적지관의 대상에 적용하는 作用”이며, “이런 관계의 의식은 지성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비판」에서, 객관적도식作用(objective Schematismus) 으로 취급되었다.”⁶¹⁾ 이에 反해 “反省的判斷力(die reflexive Urteils kraft)만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법칙을 비로소 줄 수 있다.” 즉 규정적 판단에 선험하여, “심성능력들(감관·구상력·오성)의 상호一致를 통해 성립”⁶²⁾ 하며, “인식능력들의 습目的의 사용을 위한 주관적 원칙을 준다.”⁶³⁾ 이로써 Kant가 도식론에서 끌어들이는 판단력이 단지 규정적판단력일 뿐, 그 주관적 가능근거가 되는 반성적판단력의 문제가 도외시되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Kant는 결국, 구상력의 reine Synthesis에 의한 도식作用의 주관적측면을 도외시한 채 단지 오성의 자발성에 의한 객관적 도식作用(이미 주어진 범주의 현상一般에의 적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Kant는 선험적도식을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한편으로는 범주와 다른한편 현상과 동종적이어서 범주를 현상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제3자가 있어야 한다. …… 이런 매개적

58) B 180

59) B 181

60) Kant, Kritik der Urteils kraft S. 371

61) ibid. S. 30

62) ibid. S. 31

63) ibid. S. 312

표상이 선험적도식이다」⁶⁴⁾ 「선험적시간규정 (transzendente Zeitbestimmung)은 그것이 보편적이고 선험적인 원칙에 의거하는 限, 범주와 동종적이고, 타면, 시간이 다양한 모든 경험적표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限, 현상과 동종적이다. …… 그러므로 선험적 시간규정은 오성개념의 도식으로 범주속에 현상을 포섭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⁶⁵⁾

이로써, 선험적도식이 “규칙(범주)에 따르는 선험적시간규정”⁶⁶⁾임이 드러난다고 할 때, 그러나 이는 범주의 현상적용을 매개하는 도식자체가 이미 범주를 전제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의 제3자의 매개가 아니라, 자발적 오성이 자체內的 매개로 이질적 현상을 포섭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순수 오성개념은 범주에 있어서의 오성기능 이외에 감성의(특히, 內感의) a priori 한 형식적 조건을 포함해야 하며, 이것이 범주가 대상에 적용될 수 있기 위한 일반적 조건을 포함」⁶⁷⁾ 한다면, 또 이런 조건에 의해 촉발됨으로서만 통각은 직관에 통일적 규정을 부여할 수 있다면, 이 조건이야말로 범주와 현상을 매개하는 근원적 의미의 도식인 것이며, 그것은 「구상력의 선험적 소산」⁶⁸⁾인 限 진정한 의미의 도식작용을 수행하는 원천이어야 한다. 그러나 Kant 는 이를 주목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이상의 해명을 중단한 채,⁶⁹⁾ 단지 ‘오성의 도식作用’을, 즉 이미 주어진 범주에 의한 시간규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1) 量의 범주의 도식은 시간계열(Zeitreihe), 곧 數다. 이는 동질적 단위를 순차로 더해가는 표상인 바, 이런 수계열은 시간의 연속을 전제로 해서 성립할 수 있는 것이며, 수계열의 무한성의 표상도 이미 근원적 시간표상 속에 무한히 주어지는 a priori 한 다양에 대한 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數의 통일은 직관의 覺知에 있어 시간자체를 내가 생산해 내는 데 기인한다」⁷⁰⁾ Kant 는 이런 언급 속에서, 범주에 따른 시간규정 (objektive Schematismus) 이 이미 시간의 근원표상(地平)을 산출하는 구상력의 순수종합을 전제함을 암시하고 있다.

2) 質의 범주의 도식은 시간내용(Zeitinhalt), 즉 度다. 무한히 주어지는 지금의 한 시점에서 감각내용에 의한 시간의 충실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즉 質의 범주인 實在性·否定性·制限性에 의해 시간내용을 선험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3) 관계범주의 도식은 시간질서(Zeitordnung)로서 지속·계기·동시존재다. 지속성(Beharrlichkeit)은 경험적 시간규정一般의 기체(Substrat)로서 실재적인 것의 표상이다. 계기(Sukzession)는 定立된 實在的인 것에 다른 것의 규칙적인 후속이다. 동시존

64) B 177

65) B 178

66) B 184

67) B 179

68) B 181

69) 이는 연역론에서 그가 범주의 발생론적 해명의 단초를 제시했음에도 그 상세한 해명을 중단한채, 형식은리학의 판단표에서 범주들을 도출해 낸것과 비견된다.

70) B 182

재(Zugleichsein)란 한 實體의 규정과 다른 實體의 규정이 법칙적으로 共存하는 것이다.

4) 양상법주의 도식은 시간총괄(Zeitbegriff)이다. 무한히 주어지는 임의의 한 시점에 존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일정한 시간에 존재하며 시간을 충실화할 때 현실적이며, 모든 시간에 존재하여 全內容을 충실화할 때 필연적이다. 즉, 현상들이 시간 속에서 총괄되는 방식을 나타낸다.

이로써 「순수오성개념의 도식은 범주가 직관과 관계맺도록 하여, 의미를 주는 진정한 유일한 조건」⁷¹⁾으로 개념의 감성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식작용을 통해 구상력은 개념을 實在化함과 동시에 그 사용을 현상에 制限한다.

V. 원칙론에서의 시간과약

Kant는 원칙론에서, 「직관으로서의 모든 현상은 外延量(extensive Größe)」이라는 ‘직관의 公理’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경험적 시간현상을 외연량으로 파악하는 직관의 公理가 결코, 순수직관인 시간자체의 파악일 수 없고, 범주에 따른 계기적종합(sukzessive Synthesis)은 시간의 근원표상을 가능케 하는 구상력의 생산적종합과는 구별된다는 점이다.⁷²⁾ ‘무한히 주어지는 유일한 全體’로서 표상되는 시간표상은 결코 부분(등질적 단위)의 부가에 의해 계기적으로 종합된 집합량이 아니며, 오히려 부분(단위) 자체가 이미 전체시간의 制限에 의해 주어진 것에 불과하다.

즉, 모든 외연량의 산출에 있어 전제되는 「등질적 단위(ex. 점, 순간)는 공간과 시간을 제한하는 위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런 점이나 순간도 그 자체는 극한일 수 없고 무한한 분할가능성을 內包하고 있다. 즉 「量에는 그 이상 더 작을 수 없는 최소의 부분은 없다.(어떤 부분도 단일하지 않다) 이러한 量의 性質이 連續性(Kontinuität)인 것이다」 「시간은 連續量(quanta continua)이다. 왜냐하면, 그것의 어떤 부분도 限界(순간)에 둘러싸이지 않고는 주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그 부분자체가 다시 하나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B 211) 例컨대, 1초라는 단위는 최소의 부분일 수 없는 데, 왜냐하면, 그 자체 무한히 연속하는 시간의 흐름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量은 유전적(fließende)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양의 산출에 있어 생산적 구상력의 종합은 시간 속에서(in der Zeit) 진행하며, 이런 시간의 연속성을 우리는 흐른다Fließen(즉, 흘러간다)고 표현하는 것이다」⁷³⁾

71) B 185

72) 계기적 종합은, 例컨대 시간계속을 통해 명확해진다. 즉 일정한 시간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1초를 단위로 계기적으로 부가하여 외연량적인 수치로 환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집합량 Aggregat은 「생산적 종합의 연속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속하는 종합(aufhörende Synthesis)의 반복 Wiederholung에 의해 생긴다」(B212) 그러나, 이렇듯 상이한 종합의 방식을 Kant가 모두, '종합—일반의 능력'인 구상력의 作用으로 간주했다고 할 때, 양자의 관계구조는 모호한 것으로 남아 있다.

73) B 212

그러나 이러한 시간파악은 도식론에서 언급된 「그 자체 불변하는 지속적인 시간」(B 183)과는 모순된 것이 아닌가? 즉, 부단한 흐름의 연속인 시간이 어떻게 불변하는 지속적 形式(beharrliche Form)으로서 - 즉, 그 속에서 사물의 상대적 지속이나 계기, 동시존재가 규정될 수 있는 기체(Substrat) (B 224)로서 간주될 수도 있는가? 그것은 부단한 흐름의 연속인 시간이 그럼에도 항상 지금의 연속인 限에서는 동일한 지금 곧 現在地주를 형성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⁷⁴⁾ 이 물음은 애초에 감성론에서 제시된 근원적 시간표상 속에서 <무한히 주어지는 apriori 한 다양이 어떻게 유일한 전체(einige Ganze)로 표상될 수 있는가?> 라는 최초의 물음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다.

Ⅲ. 결 론

. 구상력과 시간의 문제는 순수이성의 “알려지지 않은 뿌리”(A 15) 로 부터 인간 인식의 근원적 가능성을 해명하고자 한 Kant의 사유가 도달하게 되는 궁극적인 限界로서 드러난다.

“모든 a priori 한 인식의 근거에 놓인 영혼의 근본능력”으로서 간주된 구상력의 기능은 「비판」의 도처에서 상이한 作用方式으로 드러나며, 그것은 어떤 하나의 像으로 포착할 수 없는 다양한 종합의 양상으로서 발견된다. 연역론에서 인식능력들의 근원적 연관을 위해 “종합一般의 능력”으로서 끌어들여진 구상능력은, 한편으로는 순수직관인 시간의 순수 像(reine Bild)을 형성하며, Kategorie에 선험적 질료를 주어 통각에 선행하여 모든 인식의 가능근거가 되는 주관의 원천으로서 제시되며, 다른 한편, 통각에 종속하고 주어질 범주에 따라 직관을 규정하는 능력으로 단지 오성에 귀속하는 능력으로 간주된다. 이렇듯 감성과 오성·수용성과 자발성의 매개를 위해 도입된 구상력의 종합기능은, 그러나 종합一般을 단지 오성에 귀속시킨 再版에 있어서는 그 위치가 더욱 불확실해지게 되며, 따라서 우리 인식능력들의 근원적 合一의 구조는 어둠과 혼란으로 뒤덮여 있는 것이다.

또한, 감성론에서 제시된 시간의 근원 표상은 우리를 혼돈으로 몰아 세운다.

“무한히 주어지는 다양”이 어떻게 “유일한 전체”로서 표상될 수 있는가? 이는 우리의 개념적사유의 限界는 물론, 감성적 직관의 限界도 넘어서는 절대적총체성(absolute Totalität)에의 요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⁷⁵⁾ 그러나 이 문제의 해명을 위해 끌어들여진 <자기촉발의 이론>은 더욱더 우리를 당혹케 한다. 그것은 수용성의 形式이어야 할

74) 바로 그런 한에서만, 무규정적 연속(unbestimmte Continuum)인 시간은 「그 속에서 모든 양이 규정될 수 있는 바 量性(Größeit Quantum) 자체」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Kants handschriftlicher Nachschlag, Bd. V, Nr 5846(Heidgger, 상기서 S. 44에서 재인용)

75) Kant는 「판단력 비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한한 크기란 ... 우리 자신의 이념(Idee)속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 구상력 속에는 無限한 것으로 나아가려는 열망(ein Bestreben zum Fortschritte ins Unendliche)이 있고, 이성 속에는 절대적 총체성(absolute Totalität)에로의 요구가 內實的 이념에 대한 요구로서 놓여 있다. 따라서 무한한 크기란 구상력속에 통일적 전체로서 생생히 보유된(lebendige erhalten wird) 크기의 근본척도다」(Kant, Kritik der Urteilskraft S. 80ff 참조)

시간에 의식을 촉발하는 자발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대체 무엇이 무엇을 촉발한다는 말인가? 자기촉발이란 이미 촉발하는것과 촉발되는것의 동일성을 전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심성능력에 의한 다른하나의 심성능력의 촉발로 해명될 수 없고, 오직 자발적수용성이자 수용적자발성인 하나의 동일한 자아를 상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런 상정자체는 결코 논증될 수 없는 하나의 요청으로서 남아 있고, 단지 이념으로서 제시될 뿐이다. 따라서 <자발성 자체 속에 수용성의 가능성이 놓여 있다>는 자기촉발의 Kant 적 이념은 그자체 정초되지 않은 채, 애초에 상정된 심성능력의 2元性和 더불어 「비판」의 체계內에서 모순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촉발의 문제는 자기직관, 나아가 자기인식의 문제와 연결된다. 구상력의 순수종합 속에서 우리 인식능력들은 근원적 습—을 형성하며, 감성적직관은 한갓 수용성이 아닌 자발적수용성이요, 오성적 사유 역시 촉발됨으로서만 규정성을 띠 수 있는 限, 수용적자발성임이 드러난다고 할 때, 과연 기능을 교환할 수 없는 전혀 이질적인 능력으로 상정된 애초의 2分法的 전제는 어떤 근거로부터 정당화될 수 있는가? 또, 자기촉발의 현상 속에서, 순수직관인 시간이 근원적으로 구상력의 생산적종합의 산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일종의 창조적직관을 의미하지 않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의 사유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며, 主觀性의 심연을 응시하게 된다. 대체 이렇듯 우리의 이론적인식을 限界에로 이끌어가는 애매한 심성능력인 구상력을 선험철학의 영역으로, 더구나 이론이성의 뿌리로서 끌어들이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그것의 정당성은 무엇으로부터 확보될 수 있는가?

그것은 모든 논리적 사유나 개념규정에 선행하여 사유능력인 오성자체를 가능케 하는 주관적 근거인 限, 그것의 정당성은 논리적 사유로부터 이끌어낼 수 없고 따라서 논증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단지 유한한 인간의 존재방식, 그 본질구조 자체로부터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즉, 선험적구상력의 時間形成的 종합(覺知·再生·再認)을 통해 主觀的원천들은 근원적 습—을 형성하며, 경험에 선행하여 경험一般의 가능성의 地평을 미리 형성하는 것인 限, 따라서 그에 기초함으로서만 모든 인식과 경험이 나아가 인간의 삶 자체가 가능한 限에 있어, 구상력은 자발적수용성인 유한한 인간의 경험안에서의 초월을 형성하는 뿌리가 되며, 순수감성적인 이성의 본질을 형성하는 것은 아닌가? ⁷⁶⁾

구상력과 시간의 문제는 아직도 완결되지 않은 하나의 포괄적인 문제연관 속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76) 그러나 이는 이미 우리의 말할 수 있는 限界를 넘어서, 따라서 이론 인식의 영역을 넘어서, 단지, 「심성의 확장(Erweiterung des Gemüts)으로서 감성의 限界를 實踐的 의도속에서 넘어섬(in der praktischen Absicht zu überschreiten)」을 성취하게 하는 우리의 이념으로서 제시될 수 있을 뿐이다.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S.93 참조)

참 고 문 헌

- I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Felix Meiner, Hamburg, 1956
———, Kritik der Urteilskraft, Felix Meiner, Hamburg, 1974
H. Mörchen, Einbildungskraft bei Kant, Max Niemeyer, Tübingen, 1970
M. Heidegger, Phänomenologische Interpretation von Kants K.d.r.V, 1977
———, Kant und das Problem der Metaphysik, Frankfurt.a.M. 1973
K. Düsing, Objektive und Subjektive Zeit, Kant-Studien Bd. 7/1, 1980
A. Ewing, A Short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1938